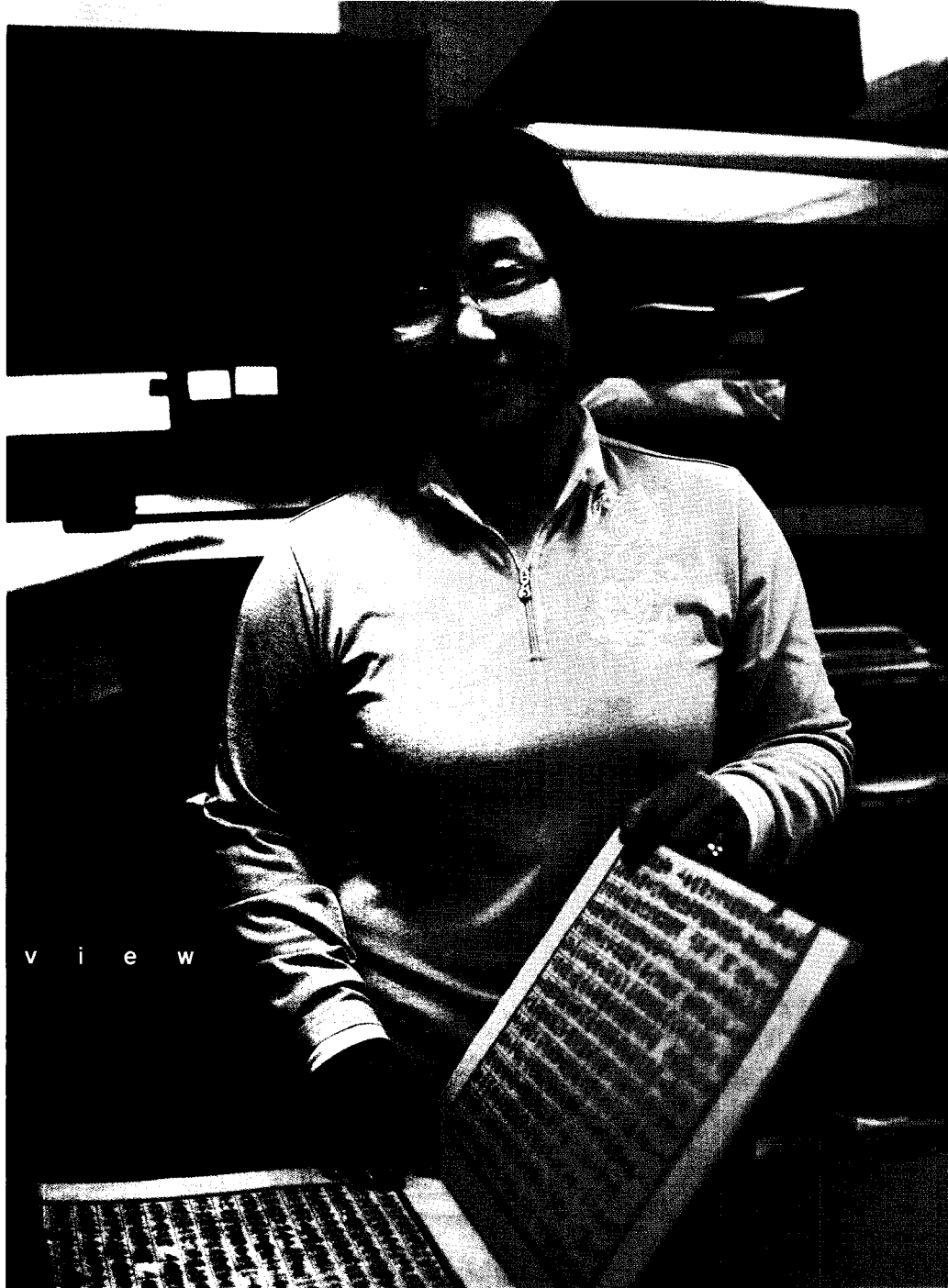


# 한지에 문화를 입히다

i n t e r v i e w



**김석란**  
(주)미래영상 대표



따르릉 따르릉~

“안녕하세요. 00인쇄사죠? 저는 00기획사인데요. 제가 한지로 인쇄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제지사에 문의를 해 보니 한지로 인쇄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한지에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지에는 인쇄를 할 수가 없어요. 보풀도 많이 날 뿐 아니라 인쇄기에 적합하지 않은 종이라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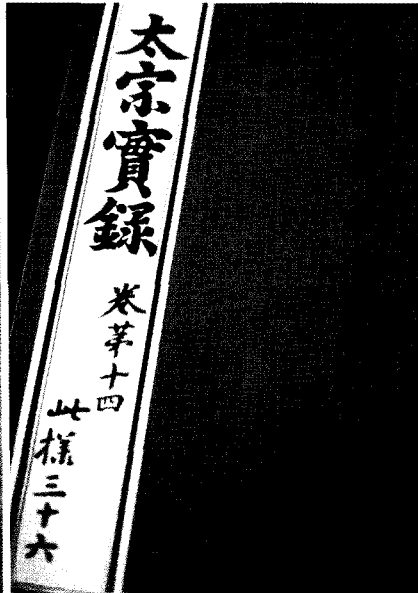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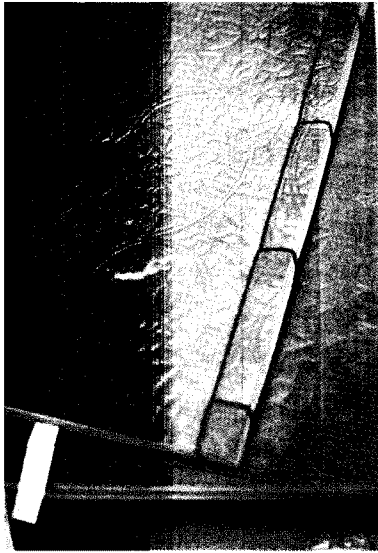
최근 디자인 차별화에 이어 종이 차별화를 통해 다른 인쇄물과 차이를 두고자 하는 기획사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종이가 아닌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한지에 인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라는 문의를 심심치 않게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 한지의 경우 보풀이 일어나고, 일반 종이에 비해 얇아 인쇄

를 하는데 적당하지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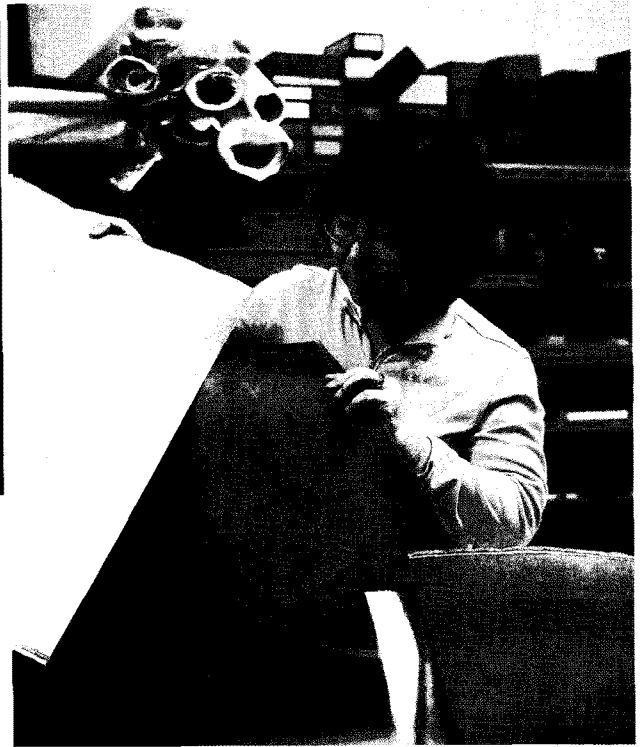
전주에 위치한 (주)미래영상(대표 김석란)은 한지에 ‘덧씌움’ 기술을 접목해 인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기술에 힘입어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0월 9일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전주에서 김석란 대표를 만났다.

**한지와 인연을 맺기까지**

7살 때부터 전주에서 자란 김석란 대표는 우리 옛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전주 지역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러다 대학에서 한지와의 첫 인연을 맺는다. 대학에서 학보사 기자 생활을 해 많은 기사를 썼지



새로운 인쇄기법으로 재탄생된 조선왕조실록



만 그 중 1년 이상 연재를 했던 '부채와 한지 장인'에 대한 기획기사가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우리의 종이를 만드는 장인들을 취재하면서 한지에 대한 매력에 푹 빠졌던 것이다.

한지와와의 두 번째 인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했던 그녀는 10년 가까이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전통 무용 등 우리 춤에 대한 사진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우리 춤을 우리 종이인 한지에 담아 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던다.

"사진은 현장의 느낌을 얼마나 풍부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한지에 사진을 인화한다면 눈으로만 보는 사진이 아니라,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왔지요. 게다가 그 고유의 질감이 우리 춤의 느낌을 더 잘 살려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지로 사진을 인화해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실험적인 사진전이라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좋았다. 이후 사진전을 통해 관심이 더욱 커진 한지로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 한지의 장점

우리의 전통종이인 한지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현재 가장 오래된 종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지였기에 가능했다.

김 대표는 "한지의 가장 큰 장점은 보존성입니다.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책들이 지금도 깨끗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는 한지가 중성지여서 변하지 않아 보존성이 좋으며, 통기성, 방충, 방음, 단열성이 뛰어납니다. 이것이 한지의 기능적 특성입니다. 그러나 한지는 기능적 특성 뿐만 아니라 풍부한 감성을 갖고 있는 종이이기도 합니다. 일반 종이와는 달리 표면의 질감이 부드러워 따뜻한 감성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김 대표는 한지의 장점이 통기성, 방충, 방음기능으로 최고의 보존성을 가지고 있는 종이이지만, 한편으로는 감성을 자극하는 종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한지기에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대표는 "전통의 중요성과 함께 한지의 중요성 또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전통을 왜 계승하는가의 문제에 돌아가보면 전통이니깐 무조건 계승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승하자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

### 인쇄용 한지 개발로 한지 상품화한 미래영상

2000년 8월에 설립된 미래영상은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사진과 한지가 결합된 사업 아이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미를 느꼈다.

김 대표는 실험실에서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최적의 감광유제를 찾는데 주력했다.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인화지

개발에 성공했으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실험실에서 소량 생산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대량 생산에서는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결국 인화지 사업을 접어야 했다. 새로 선택한 분야는 디지털 프린터 용지였다.

인쇄용지는 인화지에 비해 다양한 분야로 적용할 수 있었다. 한지로 만든 달력, 엽서, 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접목이 가능했다. 어렵사리 만든 인쇄용 한지를 인쇄하려고 했지만 인쇄사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한지는 인쇄할 수 없다”는 인쇄사들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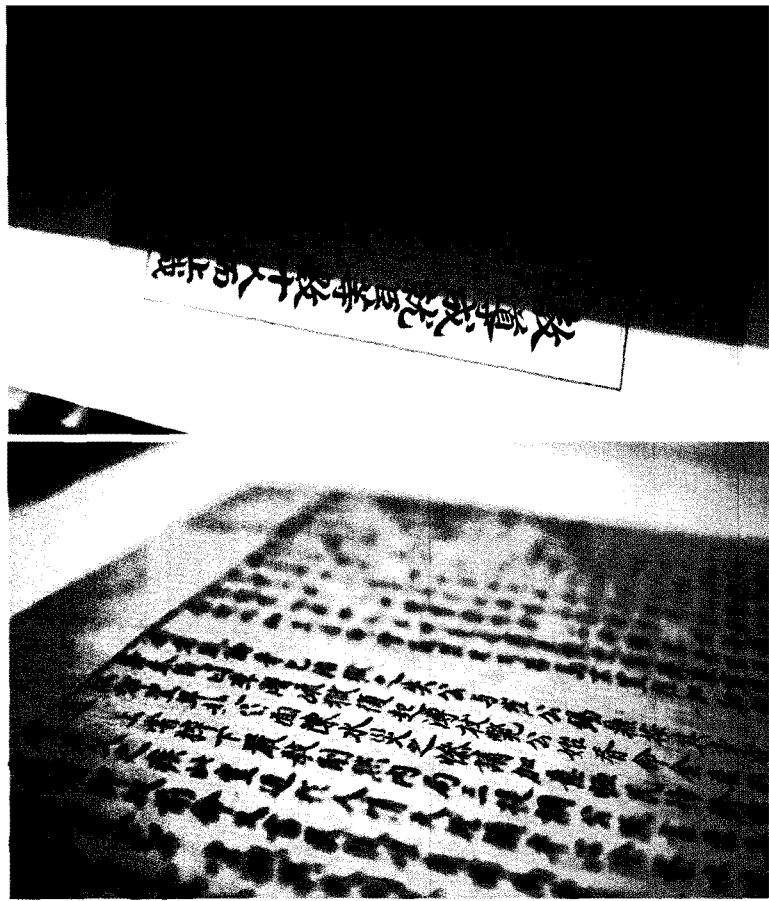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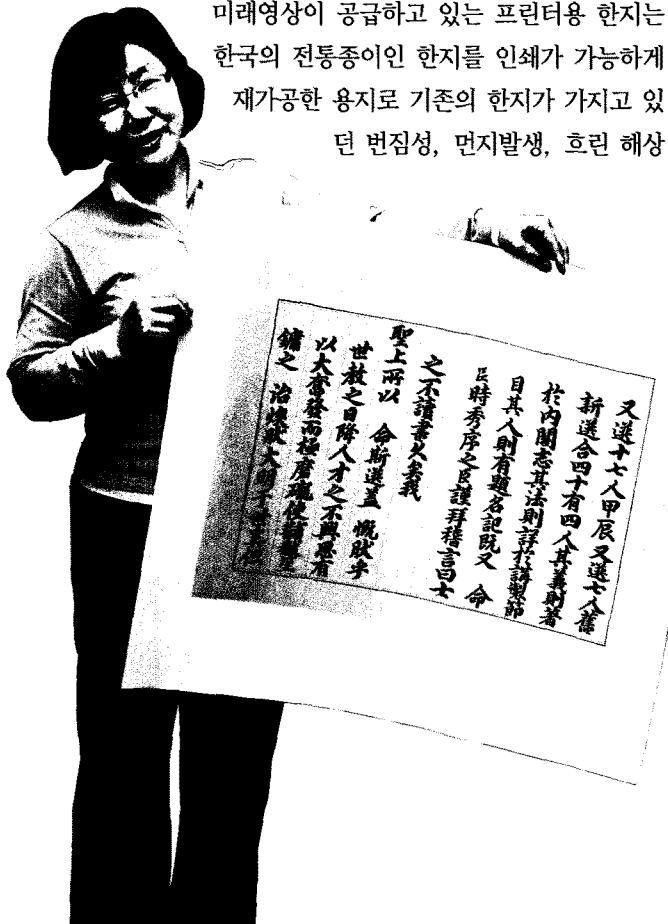
“새롭게 개발한 인쇄용 한지로 인쇄를 하려고 했지만 가는 인쇄사마다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한번도 한지에 인쇄해 본 적이 없는 터라, 기계에 무리가 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죠. 결국 한 인쇄사의 승낙을 겨우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단, 밤에만 다른 인쇄가 없을 때 한다는 전제를 달았죠. 총 2천부 인쇄하는 데 보름이나 걸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2002년 5월에는 특허청이 선정하는 ‘신지식특허인’에 김 대표가 선정되기도 했다.

### 미래영상에서 공급하고 있는 제품들

미래영상은 2002년 인쇄용 전통한지 개발에 이어, 2004년에는 전통 한지벽지를, 2005년에는 인쇄용 전통한지 특허를 등록했다.

미래영상이 공급하고 있는 프린터용 한지는 한국의 전통종이인 한지를 인쇄가 가능하게 재가공한 용지로 기존의 한지가 가지고 있던 번짐성, 먼지발생, 흐린 해상



도 등의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한지의 고유한 장점인 보존성, 통기성, 부드러운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

<천년사랑>과 <여백> 이렇게 두가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천년사랑>은 각종 사진출력이 가능하며, 디자인 출력용, 작품 출력용, 영인본 제작용으로 쓰인다. <여백>은 각종 상장, 각종 자격증 및 졸업장, 보존용문서, 명함 및 초대장, 카드, 엽서 등에 쓰인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수출계약도 체결하는 등 조금씩 사업이 확대되고 중이다.

### 한지인쇄가 가능하게 한 덧씌움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한지에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미래영상이 가지고 있는 ‘덧씌움’ 기술 덕분이다.

공기가 잘 통해 10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는 한지. 김홍도나 신윤복의 작품을 지금도 생생히 감상할 수 있는 것은 한지 덕분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쇄용지로 사용하기에는 표면에 보풀이 생기고 잉크가 번지는 특성이 있어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한지에 화학 폴리비닐로 씌워 평평하게 만든 후 인쇄를 했다. 그러나 한지에 비닐을 씌우게 되면 한지의 고유기능인 숨쉬는 기능이 사라져 한지에 인쇄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미래영상의 덧씌움은 비닐로 한지의 숨구멍을 막는 것이 아니라 천연물질을 한지 표면에 코팅해 한지 본연의 통풍기능을 유지시키면서 보풀이 일어나지 않는 인쇄용지다. 일반 한지를 두세 겹 이어붙인 ‘이합지’나 ‘삼합지’에 감광유제로 특수 코팅한 것으로, 일반 코팅과 달리 천연 약품을 한지에 배어들게 함으로써 한지의 통기성과 부드러운 질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러한 천연성분으로 작업한 결과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

업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에 쓰인 한지는 조선시대와 같은 전통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닥나무를 갈 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두드려서 작업했으며, 가성소다 등 일체의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천연표백을 해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에 미래영상의 손길이 들어가 인쇄용 한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 조선왕조실록 614책, 5만3천102면 복본화작업을 시작하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작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한국고전문학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국에 있는 전통한지 생산자들과 전통한지 전문인쇄업체인 미래영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복본화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 보관됐던 태조에서 명종까지의 조선왕조실록 614책, 5만3천102면(쪽)의 원본과 똑같은 부분을 전주한지로 만드는 작업이다. 복본은 애초 조선왕조실록이 있었던 경기전 내 전주사고에 보관돼 교육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으로, 복본화가 시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복본화사업에 사용되는 조선왕조실록은 전주사고본인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유일하게 보존된 실록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을 제외하고는 다 불에 타 없어지는 등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목판으로 복원한 실록 중 하나가 태백산사고본인데, 선조 당시의 최고 기술로 만든 것입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넘게 흘러, 올해 현대의 최고 기술인 디지털 프린트 기법으로 복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작업으로 자존심을 세우다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에 대한 김 대표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600년 왕조의 역사가 미래영상의 기술로 재현되는 것 역시 자랑스럽다. 물론 복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한지에 문양을 만드는 작업부터 어느 하나 녹록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본 전례가 없어요. 600년 동안 하나의 왕조가 지속됐고, 그 6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긴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를 보면 기록문화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복본화 사업을 통해 우리의 기록문화와 한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 Tip

- **한지란?** 닥나무, 마, 삼 등의 인피섬유를 주 원료로 수기공으로 만드는 한국의 전통종이를 일컫는다. 한지의 도입시기는 약 200경으로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현재 가장 오래된 종이로 보존되어 있다. 고려시대에 가장 번창하였고, 특히 전주에서 생산되는 종이 가장 질 좋은 종이로 알려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인쇄술의 발달로 한지의 쓰임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의 닥나무 원료로 만든 한지가 질기고 질이 좋아 화폐 등 일상생활 용품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한지는 일본의 화지(和紙), 중국의 선지(宣紙)와 구별된다. 세 나라의 고유 종이 중 한지가 우수한 것은 우리나라 닥나무를 비롯한 재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질적으로 나은 데다 종이 제조방식이 겹질을 벗겨 닥섬유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또한 이번 사업은 재현이 아니라 복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옛것을 그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적인 기술이 있는 만큼 인쇄부분의 경우 현대화를 가미한 디지털 인쇄방식을 선택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김 대표는 “재현 역시 중요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선조시대에 만들었던 책들이 그 당시의 최고 기술로 만든 것이라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옛 책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최고 기술로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쇄부분에서 만큼은 지금의 최고기술인 디지털 인쇄기술을 접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 가격보다는 품질로 승부수

인쇄용 한지는 여전히 특수한 종이이다. 일반 종이에 비해 만드는 과정도 복잡하고 원가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 전주 전통한지에 근거를 두고 가격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갖춘 한지 상품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지인쇄의 경우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인쇄하는 것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가경쟁을 할 수 없습니다. 미래영상은 저가경쟁이 아닌 품질로 승부수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영상은 국내는 관공서와 각 기관을 중심으로 한지인쇄를 홍보하고, 해외로도 눈을 돌려 일본 및 유럽 지역에도 한지인쇄를 소개해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종이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우리 한지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이 그들의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침투시키는 데 있는데, 우리 역시 이러한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조선왕조실록 복본화를 계기로 세계의 종이로 한지가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